

7주차 과제

<7주차: 실전타격술(치고, 차고 찌르는 기술)과 실전유술(메치고, 조르고 꺾는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1. 실전타격술

타격술이란 치고, 차고 찌르는 기술로 주로 발과 손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기술을 주로 사용한다. 여러가지 장/단이 있는데 고유한 장점이라면, 일단 주변 지형지물의 영향을 적게 받고 효과가 빠르며 일대일/일대다수를 가리지 않고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있다. 유술기의 경우는 타격기와는 달리 시전자의 자세나 중심이 무릎을 꿇거나 엎드리거나 하는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일대 다수, 혹은 견제상황에서 쓰기가 힘들다. 또한, 타격기는 원리가 간단하고 익히기가 쉽고 적당히만 배워도 큰 위력을 발휘하고 연습 상대나 매트 등 장비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타격가와 유술가의 대전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많다. 타격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그에 필요한 자세 유지와 공간확보가 중요한데, 유술기는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운동 에너지 전달수단(손, 발)의 가동범위를 제약시켜 충분한 타격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타격기는 상대를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타격전을 극단적으로 회피하면 상당히 공략하기가 어렵다.

2. 실전유술

유술이란, 주로 무기를 쓰지 않고 메치고, 조르고 꺾고, 던지고, 내리누르고, 조이고, 관절을 꺾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대를 제어하는 무술이다. 이러한 유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의 힘을 이용해 제압하여, 다른 무술에 비해 비

교적 물리적인 힘을 작게 쓴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을 대항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힘을 조작하는 것을 나타낸다. 폭넓은 적용성과 운용성, 융합성을 자랑하며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는 정신아래 수련된다.

유술은 고도의 연습과 근력훈련, 지겨울 정도의 반복과 컨트롤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에 비례해 실전에서 매우 강력한 위력을 보여준다. 타격기와 비교하면, 유술은 일단 기술이 걸렸을 경우 더 안정적으로 싸움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다수전시 불리함, 타격기보다 느린 제압속도, 유술 경험자와의 대전시 떨어지는 우위 정도가 있다. 서브미션이나 그라운드에서도 알 수 있듯, 유술기는 진득한 1:1 대결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실력차가 엄청나지 않는한 깔끔하고 신속한 한판승은 나오기 힘드므로 별의 별 상황이 발생하는 길거리 패싸움이나 다수의 시비같은 상황에 맞닥뜨리면 유술 특유의 장점이 발휘되기 어렵다. 또 상대가 유술의 파해법을 조금이라도 알면 비경험자들을 상대로 압도하던 그 유리함이 크게 퇴색된다. 유술가도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타격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타격을 수련해온 타격가들의 그것에 비하진 못한다. 일단 승기를 잡으면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력을 보이는데 그 그림을 짜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타격가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 유술가의 약점이다.